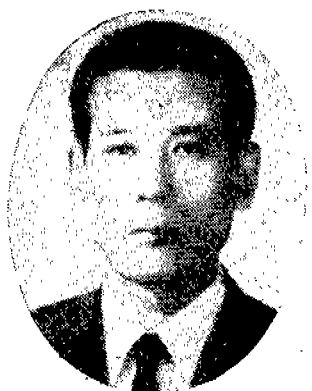


“自信과 矜持로 難題解決”



韓國電力株式會社
監事 張 性 元

榮光된 世代로서

5,000年으로 自負하는 民族史中에서 文化的으로나 文明의 豐足한 惠澤下에 잘 살아 본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하는 切實한 所望이 이제 우리가 靑壯年期에 있는 80年代까지 成就될 段階에 있다. 이 歷史的 轉換期에 産業體의 原動力이며 그 中樞神經인 電力·電子分野의 一員으로 電氣界에 從事하고

있음은 커다란 榮光이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年間에 이룩된 電氣界의 成長發展은 繁榮된 遺産을 後代에 물려 줄 수 있다는 自身과 矜持를 굳혀 주고 있다.

그러나 油類波動의 影響은 지난 한해 産業界全般에 「이제 安價한 에너지時代는 지나갔다」는 것을 切感하게 하였고 이의 長期化展望에 그 나름대로 對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世界動力會議에서 前例 없이 「代替에너지의 模索」이 深刻하게 論議되고 先進諸國이 增殖爐와 太陽熱利用等の 實用化로 根源的인 에너지危機 解消에 腐心하고 있다.

지난해 協會活動中 「電氣技術情報센터」의 開館(11. 11), 國際協力增進을 위한 韓·日電氣界覺醒交換(5. 12)과 「潮力發電세미나」開催(4. 30) 등은 모두 時宜에 맞는 適切한 對處였으며 3月 12日에 있는 閔忠植會長의 就任으로 더욱 鞏固한 業界의 總和와 未來에의 對備가 期待된다.

지난해의 電鐵開通도 電氣 70年史에 劃期를 이룬 일이며 이제 새해는 電氣界에 一大 轉換을 期하는 해가 되게 하는 것이 榮光된 世代로서의 當面한 責務가 아닐까 싶다.

資源難時代에 天惠資源이 貧困한 우리로서는 「쉽없이 뛰어도」 先進과의 同行까지는 가까운 길이 아니다.

뒤 머 생각 하며

「安價한 에너지가 新에너지 開發을 阻害하였다」고 主張한 야마니外相의 世界動力會議席上의 發言은 그들의 立場을 庇護한 것이기 보다는 그 眞實性을 認定하는 側面에서 받아 들여져야 할 것 같다.

프랑스가 在來 輕水爐型 原子爐에 비해 75倍나 效率이 높은 增殖爐(Fast Breeder Reactor) 開發에

있어 美國에 앞선 事實等은 「必要가 發明을 낳았다」고 하는 말을 다시 實感하게 한 것이라 보겠다.

原油價格이 1年 남짓한 期間에 바렐當 3\$線에서 10\$線까지 暴騰함으로써 韓國電力의 境遇 發電用 燃料費의 該社 總收益에 對한 占有比는 現時點에서 57%나 되며 他 産業分野에서도 過重한 에너지 費의 負擔이 企業經營上 가장 큰 難題로 擡頭되고 있다.

內的인 難關이나 國際的인 熾烈한 競爭은 어쩔수 없는 既定事實로서 80年代에의 所望을 위한 叡 智와 奮發이 있을 뿐이다.

資源難克服策으로 먼저 技術管理에 力點을 두어야겠다. 熱效率의 增進策으로 工產品의 生産原價分析上 電力費·燃料費等の 占有率을 同系 他 企業의 實態와 比較檢討하여 改善點을 찾는 것이 에너지節約의 于先策일 것이며 品質管理로 附加價値를 높이는 것이 또한 資源의 節減策이 될 줄 믿는다.

國產化의 幅을 넓히는 길은 品質向上으로 圖謀해야 할 것인 바 使用者의 不滿足度를 恒時 把握하여 補完하는 努力이 아쉽다. 高價豫備品이나 單獨投資로는 負擔이 過重한 分野의 企業間 또는 國際間的 共同投資를 摸索함도 資源活用の 한 方法일 것이다. 一核燃料의 再處理 等一 這間의 急激한 設備增加와 移植된 技術導入은 技術上 이를 勘當치 못하므로써 그 維持補修나 設備運用上 슬한 非效率을 낳고 있다. 따라서 拔群하는 技術·技能者는 格別히 優待하는 等으로 技術伸張이 促進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좀 더 緊密한 産學協同으로 豊富한 人的資源을 精統化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最適의 資源活用策이 아니겠는가.

다음은 技術情報管理에 더 留意하여야 할 것 같다. 날로 發達되는 技術에 適應하기 위해서는 10年 後의 樣相을 前提한 判斷下에 施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設備投資時의 施行錯誤는 돌이킬 수 없다. 技術資料의 集約이나 共同利用分野에 있어서도 좀 더 緊密한 協同이 아쉽다. 그러나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할 것은 亦是 人間關係에 바탕한 協同과 結束일 것이다.

이제 共通된 使命으로 함께 뛰어난 길을 되돌아 보며 새로운 進路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風 車 發 電 도

代替에너지 開發에의 意慾은 資源이 豊富한 나라에서 더 熱意的이라고 動力會議에 參席한 분들이 傳하고 있다. 3年內에 實用化가 期待되는 太陽熱利用暖房方式에의 適應等도 생각해 볼지하나, 우리 處地로서는 採算性이 맞게 되는 時點에 앞선 潮力開發對備, 山間壁地에서의 小溪谷利用, 風車의 힘을 빌린 島嶼地域電化等 우리의 天惠資源을 最大로 活用하기 위한 産學·官民의 協同과 새轉期造成을 새봄에 期待해 본다.